

# “더위엔 얇은 덴탈마스크”... 개장 전 번호표, 문 열자 ‘완판’

## 크포

### 마스크 대란은 현재진행형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천점 무더위에 일회용 마스크 수요 ↑ 덴탈마스크 가볍고 통기성 탁월 이마트 일부 매장 마스크 물량 여유

8일 오전 10시 마스크.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천점을 찾은 소비자들 서로 2m 간격을 두고 줄을 섰다. 매장에 들어서기 전 다양한 타입의 손세정제로 손을 닦고 조용히 매장에 들어서 번호표를 넘긴 뒤 마스크를 구매한다. 곳곳에서 큰 목소리가 들리다가도, 직원의 당부에 금세 조용해졌다.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치솟으며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자, 소비자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얇고 숨쉬기 편한 일회용 마스크를 찾았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초기 비말을 가장 잘 막아준다는 KF94마스크 수요가 컸던 것과 반대로, 날씨가 더워지면서 호흡이 어려운 KF마스크보다 일회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유통업체도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덴탈마스크를 찾는 고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대규모 물량을 준비하고 있다.

가벼운 마스크 수요가 늘자 높은 가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천점에는 오전부터 덴탈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한 소비자들로 가득찼다.

격에 판매하는 업체가 증가했고, 저렴한 마스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웰킵스의 온라인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비밀차단마스크 판매를 시작한 5일 오전 9시 직전부터 접속이 불가능해졌다. 오전 11시쯤에는 동시 접속자가 780만 명을 넘어섰다. 과잉도 이날 오전 온라인 몰을 통해 마스크 2만 장을 내놓았는데, 판매 시 13초 만에 모두 동이 났다.

창고형 할인점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팔고 있는 중국산 일회용 마스크도 순식간에 완판됐다. 첫 판매일인 6일과 이튿날인 7일에 이어 이날도 매장문을 열기도 전에 사람들이 몰렸다.

온라인 상에선 비슷한 종류의 중국산 마스크가 개당 190원에서 300원에 판매

되고 있지만, 구하기가 쉽지 않아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으로 발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일회용 마스크 50개입 1박스를 오프라인에선 흔치 않은 가격인 1만5980원(장당 320원)에 팔고 있어, 오프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몰렸다.

지난 주말에만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천점에서만 마스크 1000박스가 판매됐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6월 6일부터 7일까지 대형마스크는 120만 장, 소형은 43만5000장이 팔리며 점포 당 일일 총 4만 5000장 씩 판매했다. 이로 인해 양일간 트레이더스 마스크 매출 신장률은 직전 주말(5월30일~31일)에 비해 686.3% 증가했다.

트레이더스는 제조업체로부터 한번에 2000만 장이라는 대규모 물량을 사



이마트 마포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보였다. /조효정 기자

들이며 물량을 확보했다. 지난 1~5월 트레이더스가 판매한 KF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가 약 900만 장인 것을 고려했을 때 2000만 장은 1년 치 판매 물량이다. 그러나 직원은 “지금과 같은 추세로는 한 달 내 확보한 물량을 모두 판매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적마스크 시스템 도입 초기와 달리, 덴탈마스크 대란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구매가 이뤄졌다. 부천시 옥길동에서 온 장우영(32)씨는 “일부 고객이 줄을 가지고 약간의 실랑이가 있지만, 대부분 줄을 서는데 익숙해졌다. 흥분해서 2m 간격이 가끔 무너지긴 하지만 직원이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어 2m 간격을 유지하며 다들 점잖게 줄을 서고 있다. 당일엔 마스크 구매에 실패하더라도 아직 마스크 여유분이 있던 생각에 다들 지난번보다는 덜 예민한 모습을 보이는 거 같다”고 말했다.

매장 개장 시각인 10시에 맞춰왔다가 마스크 구매에 실패한 한 고객이 항의하자, 이마트 트레이더스 직원은 “오전 6~7시부터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9시 30분 정도면 번호표 배부가 끝난다”며 “10시에 맞춰 오신 고객분들은 구매하지 못하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 아직 완판된 게 아니라 내일과 내일모레도 판매하니 편하신 날짜에 맞춰 오시면 된다”고 차분히 설명했다. 직원의 안내에 흥분했던 고객은 안정을 찾고 조용히 돌아갔다.

일부 매장에서는 개장 전부터 번호표 배분이 끝난 데 반해, 마스크 물량이 여유로운 지점도 있었다. 이마트 마포점에는 오전 11시가 되도 대형과 소형 마스크 모두 물량이 남아있었다.

마포구 공덕동에 사는 김 씨(27)는 “다시 마스크 대란이 시작됐다고 해 설마 하며 매장을 찾았다. 생각보다 물량 여유도 있고 많이 좋아진 거 같다. 온라인 구매에 모두 실패했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성공해서 다행. 점점 마스크 물량 조절이 안정적이게 바뀌는 거 같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초기보다, 물량 수급이 많이 안정됐다. 마스크에 대한 수요도 다양해진 만큼, 고객 반응과 시장 수요를 고려해 업계에서도 다양한 공급채널과 제품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효정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 휴대폰 판매자도 우왕좌왕... 강변 되고 신도림 안되고

## 크포

### 재난지원금 휴대전화 구입

강변·신도림 휴대폰 집단 상가 판매자, 재난지원금 사용여부 혼선 이통3사 제품 취급 판매점선 사용가능 단말기 약정 할부계약 많아 효과 미미

지난 3일 오전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휴대폰 판매점 직원들은 고객행위도 없이 이어폰을 끼거나 게임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휴대폰 판매에 대한 관심도 낮아지자 직원들도 거의 체념한 듯 보였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휴대전화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소비 심리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는가 했지만, 판매자조차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에 대한 속지가 부족해 혼선을 빚고 있었다.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하지만 문의 처음”...홍보 부족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동통신 3사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휴대폰 단말을 구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휴대폰 요금을 낼 수 없는 없어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등을 제외하고는 집단상가 등에서 휴대폰 단말을 구입할 수 있다.

한동안 강변 테크노마트 핸드폰 판매층을 돌아다닌 결과, 손님은 거의 찾아



3일 오전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 층의 모습,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다.

보기 힘들었다. 평일 오전임을 고려하더라도 수많은 매장 중 대여섯 곳에서만 손님을 볼 수 있었다.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20대 A씨는 재난지원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며 운을 뗐다. 그는 “사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문의한 분은 처음이다”며 “아직 많이들 모르는 것 같다. 하지만 홍보는 계속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판매점들은 “재난지원금을 통한 판매로 매출 저조를 극복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신도림 테크노마트는 재난지원금 이용 ‘금시초문’?...판매자도 혼선

그러나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강변 테크노마트와 달리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입구에 적힌 ‘신도림테



3일 오전 신도림 테크노마트 입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백지연 기자

크노마트는 긴급재난금 사용 가능합니다’라는 문구와 대치되는 대응이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B씨는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보겠다”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불가능하다”였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이용 관련 내용이 집단상가연합회에 전달이 된 것으로 아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이 일선 유통 현장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에 대해 판매자들 또한 혼동을 빚고 있었다. 이통3사 제품을 모두 취급하는 전국 판매점에서 지원금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특정이동통신사 한 곳 제품만 취급하는 직영점과 대리점은 구매 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매장 주소 등록지, 카

드사 업종 분류 등에 따라 사용 여부는 달라진다.

또 사실상 휴대폰 단말값은 통상적으로 약정으로 할부로 내는 경우가 많아 단말만 구매할 수 있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통신 소비 심리 회복에 실질적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는 관리비나 카드값을 낼 수 없는 것과 같이 통신비 납부도 안 된다. 단말을 구입할 수는 있지만, 단말값 전액을 일시불로 내거나 부분 납부를 해야 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종천 이사는 “애초에 단말값의 경우 할부 판매가 많아 카드로 결제하는 빈도수가 현저히 낮고, 저가 단말도 공짜폰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이용 효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백지연 수습기자 silkni@

# 한전공대 총장 후보자 윤의준 서울대 교수 선임

한국전력공사가 한전공대의 초대총장 최종 후보자에 윤의준 서울대 연구처장(사진)을 선임했다.



한국전력공사는 8일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가 지난 5일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총장후보자(대학설립 추진위원장) 선임안을 의결해 윤의준 서울대학교 연구처장을 초대총장 최종 후보자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전공대는 앞서 후보군 발굴을 위해 국내 인사 29명과 해외인사 36명 등 총 65명을 직접 만났으며, 전문가 및 써치펌 추천을 포함한 자체 발굴과 공개모집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구축된 174명의 후보군에 대해 두 차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 개최해 13명의 추천대상 후보를 정한 후 지난달 총장후보자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했다. 금번 이사회에서는 후보자 3인을 평가해 최종후보자를 결정한 것이다.

윤의준 최종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미 MIT 전자재료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AT&T 벨연구소 박사후연구원을 거쳐 1992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공과대학대외협력실장, 서울대학교 연구처장과 산학협력단장 등 다양한 보직을 수행해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아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